

추석 앞두고 유커 유치 나선 이부진 사장

씨트립과 관광 활성화 협의

〈중국 최대온라인 여행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최고 경영자와 중국서 회동
협력 확대 등 中 마케팅 힘써

한중관계가 해빙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중추절, 국경절을 앞두고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중국 여행사 씨트립의 최고경영진을 만나 한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호텔신라는 지난 5일 호텔신라 최고경영진들이 중국 최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의 최고경영진을 만나 방한 중국관광객 확대·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씨트립 본사에서 열린 이날 회동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비롯해 량찌엔장 씨트립 창립자, 순제 씨트립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 2015년에도 메르스로 침체된 중국관광객의 방한 활성화를 위해 씨트립을 공식 방문한 바 있다.

씨트립은 상하이·베이징·광저우·선전·홍콩 등 중국 내 17개 중심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는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로 호텔·항공권·여행상품·비즈니스 투어·레스토랑 예약·여행 정보 등 종합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라면세점은 2015년부터 씨트



호텔신라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의 최고 경영진이 회동을 갖고, 방한 중국관광객 확대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른쪽부터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씨트립 창립자 량찌엔장, 씨트립 최고경영자(CEO) 순제.

/호텔신라

립과 제휴를 맺고 씨트립 홈페이지 내 '글로벌 쇼핑' 코너에 지역별 신라면세점과 매장 방문 혜택을 소개하고 있다.

씨트립 고객이 신라면세점 서울점, 제주점,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점, 인천국제공항점, 홍콩 체크인국제공항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 사은품, 할인 혜택 등 다양

점이 아시아 3대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글로벌 면세점 운영자로 자리 잡고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중국 마케팅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은 지난 달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며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으며, 올해 해외 매출 1조 원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이후 싸늘했던 중국이 한국 여행상품 허용 지역을 늘리고 있다"며 "곧 유커(중국인 단체 관광객) 방한도 재개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호텔신라 관계자는 "신라면세

한전, 우수 협력사 12곳과 일본 수출상담회 참가

6874만달러 상담 실적 올려

한국전력은 자사 우수 협력사인 KTP(KEPCO Trusted Partner) 12개 중소기업과 '2018 일본 부품소재 수출상담회'에 참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이번 상담회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플랜트, 전력기자재 등 다양한 분야의 일본 글로벌 바이어 100개사와 국내기업 50개사가 참가했다.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중소기업들은 1대 1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과 샘플전시회, 화상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 수출유망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는 자리



지난 4일 한국전력이 우수협력사 12개 기업과 '2018 일본 부품소재 수출상담회'에 참가했다.

/한국전력

를 가졌다.

한전은 현지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총 53건 진행하고 6874만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한전은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

업들이 해외시장을 계속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소비자원, 어린이 샌들에서 유해물질 검출

시판되는 어린이 샌들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어린이 샌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 노출에 민감하고, 샌들은 장시간 피

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특성이 있어 보다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4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개 제품의 인조보석 장식품에서는 안전기준(300mg/kg이하)을 1.15배 초과(347mg/kg)하는 납이 검출됐다.

어린이 샌들은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으로 최소 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연월·제조자명·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4개(20%)에 불과했다.

박인웅 기자

에서 안전기준(0.1%이하)을 최대 342배(최소 0.2% ~ 최대 34.2%)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개 제품의 인조보석 장식품에서는 안전기준(300mg/kg이하)을 1.15배 초과(347mg/kg)하는 납이 검출됐다.

어린이 샌들은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으로 최소 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연월·제조자명·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4개(20%)에 불과했다.

이 중 3개 제품에서는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깔창과 발등 밴드

"글로벌 시장 30개국 개척, 유라시아 시대 구심점으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아모레 창립 73주년 기념식

'고몰입 조직' 구축 강조



(주)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대표이사 회장.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위치한 용산은 한반도를 넘어 새롭게 열리는 유라시아 시대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보다 더 먼 길을 바라보며 세 번째 용산 시대를 힘차게 개척하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지난 5일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국내외 임직원, 아모레 카운셀러, 협력업체 관계자 등 4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 73주년 기념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 회장은 이날 30개국 글로벌 시장 개척 및 혁신 상품의 개발, 고객 경험의 혁신, 디지털 활용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이번 창립 기념식도 우수 카운셀러 및 협력업체, 장기 근속자와 모범사원에 대한 시상식, 클래식과 재즈 등 다채로운 축가 공연 등을 통해 내외부 구성원이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할 수 있는 자리로 완성됐다.

한편, 1945년 9월 5일 창립한 아모레퍼시픽은 아시아 미(美)의 정수를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기업 소명,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Asian Beauty Creator)의 실현을 위해 정진해왔다.

국내 최초 화장품 연구소 설립, 화장품 수출, 한방 화장품 출시 등을 통해 73년간 아시아를 대표하는 뷰티 기업으로 성장했다.

1990년대 초부터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추구하며 2000년대 이후 해외 시장 확장과 성장을 본격화하면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장해왔다. /김민서 기자 min0812@

5500만불 항공기금융 주선 성공

KEB하나은행

시중 최초 JOL 방식 계약

중고항공기 구입에 사용

KEB하나은행은 국내 시중 은행 최초로 총 5500만불 규모의 JOL(Japanese Operation Lease) 방식 항공기금융 주선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JOL은 항공기, 선박 등 거액의 유형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운용리스 계약으로 일본 세법상 인정되는 세제혜택 효과를 활용할 수 있어 글로벌 구조화 금융 시장 참가자들이 널리 활용하는 자금조달 방식 중 하나다.

이번 거래로 주간사인 KEB하나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은 일본 2위의 실물자산 투자·운용 전문회사인 JLPS(JP Lease Products & Services)의 중고 여

객기 구입자금 총 5500만 달러를 JOL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로 인해 기존 신규 여객기 위주의 항공기금융에서 미드라이프(Mid-life) 중고 여객기 구입에 이르기까지 항공기금융의 취급 영역을 확대하게 된다.

지원된 자금은 '보잉 767-300ER' 여객기 2대와 '에어버스 321' 여객기 1대 등 총 3대의 중고 항공기 구입에 사용되며 구입된 비행기는 북미 국적항공사에 리스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는 새로운 글로벌 수익원 발굴 노력을 지속해온 KEB하나은행과 JLPS의 한국 금융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가 맞물려 성사됐다.

앞서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포트폴리오 항공기금융 주선에 성공하고 국내외 항공기포럼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지속한 KEB하나은

행의 노력이 자금조달처의 다각화를 검토하던 JLPS의 니즈에 부합한 것이다.

KEB하나은행 투자금융부 관계자는 "이번 거래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성장중인 일본의 JOL 항공기금융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수익원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포트폴리오 항공기금융 주선에 성공하고 2016년 항공기 임대시장 세계 1위 업체인 에어캡(AerCap)과 국내에서 1억달러 규모의 항공기금융을 단독 주선하는 등 항공기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금융주선을 성공적으로 수행 한 바 있다. /김문호 기자 kmho@

윤석현 "금융혁신, 감독 사각지대 만들 수도"

제 20차 IFSC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펀테크 등 금융혁신이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 회의(IFSC)에서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개인정보 침해와 사이버 보안 위협 등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하며, 금융서비스의 탈중개화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IFSC는 유럽과 북미, 아시아 등 16개국의 통합금융감독기구가

각국의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감독이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이에 따라 보다 정교한 감독 접근과 글로벌 규율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융혁신을 장려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가상통화나 ICO(가상통화·화폐 공개)의 경우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이 이뤄지므로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은 자칫 국가 간 규제차이만을 발생시킬 수 있어 국제적인 규율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은 데이

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혁신적 진화를 가속하는 지원책을 내는 동시에 가상통화나 ICO 등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불건전영업에 대한 감시는 강화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정보와 협상력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소비자에게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등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해 상시감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